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개최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목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목사)와 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원장 안준배목사)이 주관한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가 지난 10월 8일(주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1부는 오병열 목사(대표본부장, 성산교회)의 사회로 ‘고백과 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사를 전한 민경배 목사(백석대 석좌교수)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았다.”며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음 인류 역사를 책임진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제2의 종교개혁의 실현을 서약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목사(서울신대)의 대표기도와 박재운 장로(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성경봉독에 이어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 1,000명으로 구성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본문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수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며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곤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사무총장)가 성경봉독을 하고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가 에베소서 2장7-9절을 본문으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오직은 충분하다는 의미”라면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전했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고 말했다. 말씀 후 참석자들은 강권식 목사(사무총장, 평택순복음교회)의 인도로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개혁과 비전’을 주제로 한 2부는 장항희 목사(준비위원장, 든든한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균양 목사(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소강석 목사(대회장, 새에덴교회)가 요한복음 1장1-4절을 본문으로 “말씀의 근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종교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외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500년 전 종교개혁의 불꽃기가 터져나온 것처럼 오늘 이곳이 한국교회 개혁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개혁을 위해 나부터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며, 처음 사람을 회복하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씀 후 합심기도는 이호선 목사(새서울순복음교회)가 인도했다. 이어 이말테 목사(루터대 교수), 이강평 목사(서울기독대 총장),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종연 목사(미래목회포럼), 문성모 목사(한교회, 전 서울장신대 총장), 박홍일 장로(한국기독교교직장신교연합회), 김종양 선교사(스와질랜드기독교대학교 이사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가 한국교회 개혁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했다.

△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교



회는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교회경신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더욱 연합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선거를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속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회내의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

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의 화해, 평화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교회 개혁선언 8개항의 내용이다.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 대학로순복음교회)는 개혁선언사를 전했다. 안 목사는 개혁선언사에서 “시대와 사회가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개혁선언을 실천하여 민족과 역사 속에서 정직,

정령, 성결한 만민제사장이 되기를 천명한다”고 말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는 김용완 목사(상임대회장, 서울순복음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특별순서로 테너 박주목 목사와 소프라노 양정아가 봉헌찬양을 불렀고, 이날 드러진 헌금은 한국교회 개혁선언 8개항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헛터와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아프리카와 대만 선교 헌금으로 사용된다.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찾아온다!

〈제19회 통일성취기도회〉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7개 부대에서 개최

“이 땅의 하나 됨은 오직 하나님 의 장중에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하나 됨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19년 동안 통일 염원해

〈제19회 통일성취기도회〉가 지난 10월 19일(목) 오전 11시 광림교회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7개 부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통일성취기도회〉는 1999년 12월 ‘통일성취기도대회’라는 이름으로 전방 육군 7개 부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통일성취기도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매년 10월 행사를 가져왔다. 또한 2003년에는 해병대를 포함하여 육·해·공군 등 모든 군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

특별히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 국가의 안보에 대해 많은 우려와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 기도를 절실히 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때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 땅의 하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하나 됨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날 각 선교구별로 정해진 부대를 찾은 성도들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장병들을 위문했다. 군부대를 직접 찾아갈 수 없었던 성도들은 같은 시간 광림교회 본당(벤엘성전)과 지성전에 나와 기도예도 동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에즈레리대학교의 비슨과정 참여 신학생 40명이 광림의 목회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찾아와서, 통일성취기도회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양구

에 있는 육군21사단을 찾아 김정석 담임목사와 광림교회 성도들과 같이 현지 부대에서 실시하는 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림교회는 군장병들에 대한 선교가 장차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여러 군부대의 교회 건축에 앞장서 왔으며, 그밖에 진중세례식 등 다양한 군선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는 등 군 복음화와 해외 선교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총회 제102회 신·임원 환영!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

주제 :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시 16:3)



이규필 목사
(한중노회/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강대일 목사
(한중노회/평안교회)



김영국 목사
(호남노회/양지중앙교회)



임상국 목사
(대구노회/천복교회)



주성광 목사
(경남노회/사천대명교회)



서제식 목사
(서인노회/통성교회)



김상대 목사
(수원노회/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한중노회/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대구노회/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한중노회/시온교회)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동천교회)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한국교회연합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 열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10월 13일(금)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한교연은 이같은 결의 내용을 지난 16일 교단장회의의 대표 3인(이성희 김진규 전명구 목사)에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한기연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 본회는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국기독교교연합(한기연) 창립총회(2017.08.16.)를 개최하였으나 총회 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하였다. 따라서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기연 총회를 위한 정관을



합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단장회의 3인, 본회 3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정관을 합의 확정하고, 이들 6인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토록 한다.

3.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재를 득해 공문을 발송하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현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한기연은 본회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본회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되며, 한교연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들 중에 교단장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교단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본회는 12월 5일 예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 총회를 개최하고 폐회할 때까지 존속한다.

5. 한기연에서 요청한 교단장총회에 공동개최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한기연의 10월 20일 행사에도 공식 참여하지 아니한다.

6. 본회와 교단장회의 양측 각 3인(한교연 : 고시영 황인찬 석광

근, 교단장회의 : 이성희 김진규 전명구)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본회 회원교단은 10월 30일까지 본회에 분담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미납할 경우 한기연 가입을 보류기로 한 결의를 재차 주지토록 한다.

7. 국민일보 보도에 한기연 실무자가 한교연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 한기연은 한교연의 법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 청산이 아니다. 따라서 한기연 실무자가 한교연 청산 운운하는 것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난 6회기동안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주도해 온 본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례한 망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양측 통합에 저해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본회는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실천함에 있어 통합과정을 통해 확장발전언정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재발될 시 모든 책임은 교단장회의측이 져야 할 것임을 밝혀드린다.)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취임예배 드려

철저한 신본주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8일(금) 오전 성령교회(경기도 광주시 경춘대로 1994)에서 드려졌다.

총무 엄진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박홍자 장로의 대표기도와 성령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 후 증경대표회장 지덕 목사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행 22: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덕 목사는 "크리스천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 6일은 맡겨 주신 일 열심히 하라, 주의 날이 되면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라며 "비율에게는 사명이 있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귀하다. 한기총 대표회장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 엄기호 대표회장님을 통해 한기총이 새로워질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큰절을 하면서 취임사를 시작한 엄기호 신임 대표회장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과 사랑에도 감사드린다"며 "이 시기에 저를 대표회장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는다.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교회 속 영적으로 흐려진 것들을 바로잡고, 옳고 그름이 된 사회에 알려주며 어둠의 빛이 되며 부패된 곳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직전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기총 임원 일동은 엄기호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했고,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총연맹에서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명예회장 조용기 목사와 직전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연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대독 김갑수 중무실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증경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

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동) 김진규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이종승 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이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관을 통해 축하난을 보내왔다.이어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의 내빈소개 및 광고와 증경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 김수을 목사가 오찬기도를 했다.

현재 양평공식기도원 원장, 사단법인 국외를 이사, 한국기독교복음주의총연맹 총재,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삼일부총재, 성령교회 담임 등을 맡고 있다.

예장개혁, 102회기 총회장에 조광표 목사 당선

합동특별위원회와 교단발전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총회장 조광표 목사

예장개혁 제 102회기 총회장이 지난 9월 19일(화) 목포신안반치호텔에서 임원진선출과 각

노회에서 헌의된 안건 및 한국교회의 현안들을 결의하고 20일(수) 폐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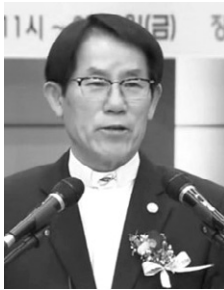
이날 개혁총회는 1부 개회예배에서 부총회장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의 인도로 서기 강상구 목사가 기도를, 직전총회장 문효식 목사의 말씀선교, 증경총회장 정두일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2

부 증경총회장 안성삼 목사의 성찬식을 집례하고, 3부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임원선거에서 부총회장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를 총회장에 추대하고, 신. 임원을 선출했다.

개혁총회 제102회기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조광표 목사, ▲목사부총회장 서익수, ▲장로부총회장 조성도, ▲서기 강상구 목사 ▲부서기 채광명 목사 ▲회록서기 정덕승 목사 ▲부회록서기 안병권 목사 ▲회계 주상길 장로 ▲부회계 강병기 장로 ▲총무 이재형 목사 등이다.

예장 중앙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 이진호 목사 선출



총회장 이진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남양주 시대를 이루는 임마누엘 성총회'를 주제로 제 48회기 정기총회를 갖고 새 총회장을 선출했다. 총회 제 48회기 신임총회장으로는 행정부총회장을 역임하고 직전총회장 별세 후 직무대행을 맡아 총회를 운영해 오던 이진호

목사가 당선됐다. 이진호 신임총회장은 총회의 화합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비롯해 대외적으로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회장 투표는 7명의 선거관리위원을 현장에서 선출하고, 총회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326명의 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3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최다표를 획득한 이진호 후보가 새 총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과 미국에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더욱 알차게

양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합의

크리스천비전신문 대표 이정현 목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한국 지저스타임즈신문(사장 소진우 목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사가 문서선교를 위한 동반자로서 언론을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전격 합의했다. 지저스타임즈신문 대표이사 정



기남 목사는 "대표 이정현 목사는 크리스천비전신문과 비전복음방송을 운영하며 그동안 미주교계에 선 한영향력을 끼쳐온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양사가 서로 주안에서 MOU를 체결한데 대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 대표 이정현 목사는 "한국교계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전하는 신문 지저스타임즈와 MOU를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본지와 지저스타임즈가 한국과 미국에서 네트워킹을 가동해서 한국과 미국 교계소식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해 나갈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스디 리 기자
info@christianvision.net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요령규정 및 그 실행요령을 준수한다
대표이사: 이종진 목사 명이사장: 정기남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사로 176빌딩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5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성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청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초빙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블랙박스 · 네비게이션 A/S 도, 소매



네비게이션 / 블랙박스 / SOC 전국운영점

블랙박스 /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차량용/태터 설치 판매 / AS 전문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02 MK빌딩 1층 (구, 양명동 1가 31-10) 마스트프리카

☎ (02)806-5119

탈 퇴 공 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귀 교단과
경성노회를 탈퇴하게 되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목사 : 방석관

합동보수 제102회 성총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 연임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김영국 목사, 선출 총무 조영만 목사 유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에서 지난 9월 12일(화)오후 1시30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동천교회 본당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주제로 제102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총회장 이규필 목사를 추대하고 만장일치 제102회 총회장에 선임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하고 제1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의 기도, 서기 임상국 목사

가 성경봉독(잠16:3)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조영만 목사의 총회 광고를,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총회장 이규필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에는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집례로 경남노회장 강치현 목사가 기도를, 분병 분찬 위원은 한기장 목사, 김관호 목사 맡았으며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고전 11:23-29절을 인용 “성찬의 의의”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 총회장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죽노라”는 말씀대로 이는 우리가 행할 일이라고 했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3부 회무처리에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회원 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총회장 이규필 목사가 유임되었으며, 제1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제2부총회장 김영국 목사 등이 신임부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 합동보수 제102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한중노회/동천교회), 제1부총회장 강대일 목사(한중노회/평안교회), 제2부총회장 김영국 목사(호남노회/양지중앙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대구노회/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경남노회/사천대곡교회), 회록서기 서재식 목사(서인노회/풍성한교회), 부회록서기 김상대 목사(수원노회/반석교회), 송인섭 장로(한중노회/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대구노회/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한중노회/시온교회) 등이다.



웨신총회, 허창범 목사 만장일치 총회장에 선출

부총회장 오상열, 신언창, 김영환 목사 등을 선출

한기총에 가입된 두 웨신총회가 하나 되는데 힘쓰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지난 9월 4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안구 구암로 푸른솔교회 본당에서 부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인도로 제 102회 정기총회개회에 앞서 1부 감사예배를 드린 후 단독임후보 한 푸른솔교회 당회장 허창범 목사(호남노회)를 총회장에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선출했다.

이날 부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두 탕자의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회장은 집 나간 탕자를 예를 들어 웨신총회가 당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행하게도 웨신은 떠난 형제들이 또 하나의 웨신총회를 설립하여 한기총에 등록되어 현재 두 교단이 한기총 회원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이제는 다시 합쳐야 하겠다는 뜻에서 조건 없이 집나간 총회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고 받아



총회장 허창범 목사

드리겠다는 것이 총회 의과제로서 총회원 모두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 총회장은 한기총에서 웨신의 두 총회장이 만나면 우리가 어찌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느냐며 담소를 나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두 총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제102회기 웨신총회 신입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 허창범 목사(호남노회/푸른솔교회), 부총회장 : 3인 제1부총회장 오상열 목사(한서노회/승리교회), 제2부총회장 신언창 목사(연합노회/성암교회), 제3부총회장 김영환 목사(영서노회/생명생교회), 서기 : 박정균 목사(호남노회/번성교회), 부서기 김정욱 목사

(서울노회/총일교회), 회의록서기 : 임영선 목사(한서노회/빛과소금교회), 부회록서기 : 해소리 목사(영남노회/시온산교회), 회계 : 정순옥 목사(연합노회/한국미래선교), 부회계 : 최두리 목사(중부노회/성막교회), 총무 : 박우재 목사(대학노회/영도교회), 대내외사무총장 신언창 목사(연합노회/성암교회), 감사 : 이동희 목사(연합, 동산교회), 이훈규 목사(연합, 지주교회), 신동근 목사(서울, 햇빛교회) 등을 선출했다.

웨신총회는 이영남 사모(영남가패 대표), 광영선(미래여행사 대표)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영남 사모는 지난 8년 동안 총회수련회와 각 행사를 하는 곳이면 가까운 커피 농장과 다과를 준비하여 300-400명의 총대들을 열성을 다해 섬겨왔기에 총회장과 총회원 일동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는 감동의 자리가 되었다.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모이다. 이영남 사모는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부인이시다.

평안교회, 장로장립, 집사안수, 권사임직 가져

강대일 목사, 임직식을 통해 교회부흥에 추진력을 발휘할 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한중노회 평안교회(당회장 강대일 목사)는 지난 10월 9일 오전11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가에 위치한 본 성전에서 장로, 권사, 집사 등 5명의 임직자를 안수하고 새로운 일꾼으로 세웠다. 담임 강대일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 조영만 목사(시온교회)의 대표기도, 한기장 목사(부노회장)의 성경봉독(계2:8-11), 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노회장은 “선교, 전도, 교육, 섬김, 봉사 등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이라며, “5명의 임직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변화와 기도응답, 축복, 능력, 부흥, 사랑을 있게 하는 하나님 사역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성이란 아래 사람이 뒷사람에게 예의를 갖춘 자제라면서, 새 임직자

들이 갖추어야 할 예의이며, 임직자가 행할 일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순종에 있어서 “주의 종의 비전과 꿈을 위해 동역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나가서는 안되며, 하나님 나라의 예화를 남기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임직을 맡은 한중노회 안수위원은 임직자들을 안수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과 격려로 악수례를 가진 후 강대일 담임목사는 임직을 받은 강대운 장로, 강대섭 장로, 조은자 권사, 김미경



담임 강대일 목사

권사, 김의수 안수집사 등에게 각 임직패와 성경책을 선물로 증정했다.

이날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의 권면,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증경총회장/서울소망교회)의 축사가 있었다. 두 분의 축사, 권면에서 “오늘 임직을 받은 새 일꾼들은 담임목사의 신앙을 본받기 바라고, 일한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자손 대대에 간증 할 수 있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특별순서로 김승환 목사 부부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축하와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발행인)의 축도로 마친 후 기념촬영을 갖고, 평안교회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오찬으로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안수위원은 김국태 목사, 서동기 목사, 이규필 목사, 정기남 목사, 강대일 목사, 김관호 목사, 이세중 목사, 조영만 목사, 한복희 목사, 임원택 목사, 한기장 목사 등이다.

성순회 기자 jtpress1@hanmail.net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 Bless 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총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2(월) 오후 서울 Itaewon Crown Hotel ☎(02)797-4111
Mission Festival For Multi-Ethnics in Korea
추석특별성회
성남 세계전야교회(윤도라 목사) ☎(031)721-4847
제208차 해외성회(208th Overseas Assembly)
9(월)~11(수) 미국(U.S.A.) LA 순복음제자교회(이선자 목사) ☎(714)220-7660
13(금)~15(주) 미국(U.S.A.) 뉴욕 서경교회(최고선 목사) ☎(845)355-8829
16(월)~18(수) 미국(U.S.A.) LA 평화교회(김은목 목사) ☎(213)249-2467
20(금)~22(주) 서울 반석교회(임영희 목사) ☎ 010-6241-1909
22(주) 저녁 대전 순종교회(김성호 목사) ☎ 010-3011-6967
23(월)~26(목) 군산 하늘성교회(이영애 목사) ☎ 010-9737-0691
27(금) 오전 안산리치자살기념교회(최재환 목사) ☎(031)947-0091
주최: GoodTV부흥사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사무총장 김용희 목사)
29(주) 저녁 천안 목암교회(유영석 목사) ☎(041)575-5672
주최: 나사렛천안지방회(지방법 성관선 목사)
30(월)~11.1(수) 광주 한성행복교회(홍사라 목사) ☎ 010-5458-6040

지저스타임즈 JTNTV 및 연부협 제12주년기념감사예배 공고

지저스타임즈 본사발전과 문서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동참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드리며 온 세계에 마지막 때를 바로 알리는 복음의 나팔을 신문과 방송에
실어 보내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협력해 주시며 이에 대해 더 좋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발행인)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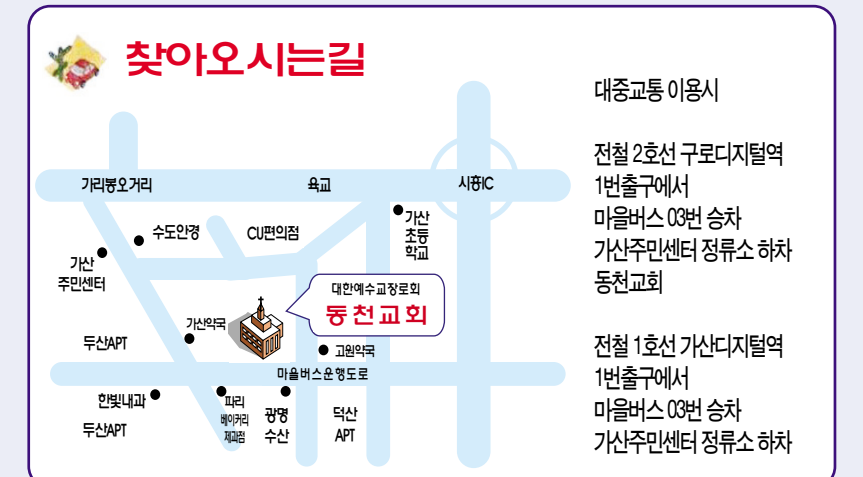


곽영민 목사
(인철지사)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

-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동천교회(합동보수 총회장 이규필 목사 시무)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 전화 : 02)854-1326, H · P010-7474-3173
-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H · P010-2080-0651
- 총무국장 백운성 목사 H · P010-2479-7793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층 202호)
www.jtntv.kr www.cpj.kr E-mail:jtntvcj@naver.com

■ 靑松 건강칼럼 (598) 調劑藥 바로알기

藥 이야기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가을을 흔히 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부른다. 또한 가을에는 높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곱게 물든 단풍(丹楓)을 즐길 수 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강원도 설악산은 10월 19일, 서울 인근 북한산은 10월 29일, 전북 순창군과 전남 장성군 지역에 걸쳐있는 내장산국립공원은 11월 8일로 예상되고 있다. 절정이 예상되는 날짜를 기점으로 일주일 앞뒤로 해서 ‘단풍여행’을 다녀오면 좋다.

가을에는 어느 계절보다 먹을 거리가 풍성하고 낮아진 기온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食慾)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체적으로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다. 올해는 추석 명절과 열흘이나 계속된 황금연휴로 인하여 과식(過食)과 과음(過飲) 등으로 약(藥)을 복용한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과식에 의한 소화불량이 되면 대개 소화제(消化劑)를 찾는다.

의학화(醫化學)의 창시자인 스위스의 의화학자 겸 화학자 파라켈수스(Theophrastus Paracelsus, 1493-1541) 박사는 “독성(毒性)이 없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藥)은 독(毒)이다”고 설교했다. 약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병을 약원병(藥原病)이라고 한다. 오늘날 현대인은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약원병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수촌(長壽村)에는 약이 없으며, 고작 사용하는 약들도 그 지역에서 나는 생약(生藥)에 불과하다.

중국의 옛 의서인 신농본초경(新農本草經)을 보면 약을 상약(上藥), 중약(中藥), 하약(下藥)으로 나뉜다. 상약은 오래 먹어도 좋지만, 하약은 반드시 병을 치료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상약은 음식과 경계가 분명치 않은 의식동원(醫食同源)이란 차원에서 보면 넓은 의미의 식품이라 할 수 있다. 동양과는 달리 서양의 약들은

회교의학의 연금술(鍊金術)과 함께 생겨나 화학공업의 발달에 힘입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약이 생겼고 화학요법은 대부분의 전염병을 고전적 질병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약들은 약효가 뛰어나지만 부작용도 크다. 장수촌에선 약을 먹지 않아 장수한다고 말한다. 현대인도 약을 꼭 필요할 때만 먹고 남용하지 말아야 장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든지 조금만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연간 16회(2015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일본(12.7회)보다 3회 정도 많았고 OECD 평균 7회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따라서 약도 많이 복용하게 된다.

몸에 좋은 약이라도 용량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독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음주(飲酒) 도중 또는 직후에 두통으로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肝)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이 함유된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면 항생제의 약효가 떨어진다. 이에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 먹는 것이 좋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팀이 고혈압(高血壓) 약을 처방받은 환자 1139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혈압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178명은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즉, 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생활습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혈압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 등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하루에 평균 6개 이상 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력(藥歷) 관리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약물 중복 복용 등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약사가 환자의 약력을 위시하여 혈압, 혈당 등도 조화가 가능하며, 대만도 약사가 환자의 약력을 조화할 수 있다. 일본은 ‘건강소프트(support)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는 주치의(主治醫)와 연계된 동네단골약국을 갖게 돼 처방받은 약에 대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기에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에서 조제를 받다 보니 환자의 약력이 여러 약국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같은 약을 중복해서 복용하거나, 약물 간에 충돌이 일어나 건강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에 모든 약물이 포함돼 있지 않아 많은 약물들이 이중복 투여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藥師會)는 약물복용안전을 위하여 ‘세이프(safe)약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인 환자에 특화된 약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병원 약사(藥師)위원회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식사 직후’에 먹도록 복약 기준을 변경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대개 ‘식후 30분’을 지키는데 이제 이 불문율(不文律)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식후 30분’ 기준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환자들은 이 기준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환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복약 기준을 변경했다.

약의 종류에 따라 식전, 식후, 취침 전 등 3가지 복약 기준이 있다. 서울대학병원이 변경한 기준은 식후에 복용하는 약에 해당한다.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약이 아닐 경우에는 식사를 거르더라도 시간에 맞추어 복용하여야 한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약사의 직능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창약(創藥), 제약(製藥), 용약(用藥)에 관련된 업무이다. 창약이란 약을 연

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말하며, 신약 개발에도 약사들이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약은 기존 화학약품 생산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용약은 생산된 의약품을 유통을 통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는 단계의 역할을 말한다. 일반 국민들은 약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알약이라도 약의 쓰임에 따라 복용법이 다르므로 복용법을 꼭 확인하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약의 모양에 따라 정제(알약), 산제(가루약), 설하정, 시럽제 등으로 구분한다.

알약을 복용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특히 일부 골다공증(骨多孔症)치료제는 아침 러 약국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같은 약을 중복해서 복용하거나, 약물 간에 충돌이 일어나 건강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

‘설하정’은 혀 밑에 넣고 녹여 먹는 약으로 혀 접막에서 흡수된다. 협심증(狹心症)에 사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대표적인 약이다. 따라서 삼키거나 씹지 말고 혀 밑에 넣고 녹기를 기다려야 한다. ‘산제’는 약의 쓴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연령, 체중에 따라 용량이 다른 소아의 경우,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복용할 수 있고 녹는 시간이 길지 않아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장용정’은 장(腸)에서 녹는 약으로 위(胃)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특수한 막이 있어 약으로부터 위를, 위산으로부터 약을 보호한다. ‘서방정’은 체내에서 서서히 녹도록 코팅되어 있어 효과 지속 시간이 길고, 약이 갑자기 많이 흡수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장용정이나 서방정은 절대로 씹거나 가루로 먹지 않도록 한다.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 성인 환자 150명에게 ‘좋아하는 색깔로 약을 바꿨을 때 약을 더 잘 먹게 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50%가 ‘그렇다(40.7%)’와 ‘매우 그렇다(9.3%)’를 선택했다. 약의 색깔로 흰색을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0.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노랑(16.7%), 초록(13.6%)의 색깔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약사연맹(FIP·Federation of International Pharmacist) 제77차 총회가 세계 139개국 3000여명의 약사와 약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Coex)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2017 서울 FIP 총회·학술대회는 대한약사회(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와 대한약학회(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성공리에 막을 내린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 및 세계약학술대회 이후 우리나라 제약 시장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 제약시장은 120년 역사를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기술력을 자랑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1조7256억원으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약 1200조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약학 수준은 세계 선진국과 견주어도 될 만큼 발전했다.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7년도 전공별 세계 대학 순위에서 따르면 세계 최고 약학대학 순위에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18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성균관대 약학대학과 연세대 약학대학도 세계 순위 100위권 안에 들었다. 현재 35개 약학대학에서 약학학사, 석사, 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 세계 제약업체에 ‘M&A 바탕’이 거세게 불어 그 규모가 2012년 1850억달러(약 212조원)에서 2016년 4750억달러(약 544조원)로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기존 화학합성 의약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다국적 기업들이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하여 새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도 성장하는 바이오 치료제에 주목하고 바이오 기업들을 사들여 기업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먹다 남은 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으로! 각 가정에는 먹다 남은 의약품들이 있다. 이 의약품들을 함부로 버리면 수질과 토지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가면 사용가능한 것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재(再)사용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약은 약국 내 폐(廢)의약품함에 모아 지역 보건소에 전달한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소각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의보다 나은가? -15- (마 5:20)

1.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리새인처럼 근체의 십일조까지 드리며 안식일과 율법을 그들보다 더 잘 지켜 합격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정말 어렵고 난해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도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인용하여 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 마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마 5:28). 오른 눈이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약 마태가 기록한 대로라면 누가 성한 몸으로 천국 가겠는가?

2.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놀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마 5:22에 기록하고 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마 5:28). 오른 눈이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약 마태가 기록한 대로라면 누가 성한 몸으로 천국 가겠는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뺨을 치거든 맞고, 속옷을 가지고자 한자에게 겹옷 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며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왜 예수님은 이런 율법적인 설교를 산상에서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옳은가? 대단히 중요하다.

3. 이 성경 구절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요일 5:11).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했다(고후 13:5).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니라. 그 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마 5:48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예수님은 다른 상황에서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다. 부자 관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눅 18:18 질문할 때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또 어떤 율법사가 똑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눅 10:25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물으니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대(레19:18,신6:5). 하니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신다.

문제의 해답은 눅 18:18절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부자 관원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깨우쳐 준 말씀이다.

4. 분명한 것은 마 5:48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정 하사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신 것이다(엡 1:5).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뜻이다(벧전 1:23).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롬3:20).

산상설교를 마태와 누가 또한 비슷하게 기록하였다. 마태는 107절로 누가는 30절로 압축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가? 핵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율법을 전 하였는가? 복음을 전하였는가? 여기서 복음적 해석의 키를 찾을 수 있다. 무엇인가? 세례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장소에 오는 것을 보았다(마 3:7) 세례요한은 우리가 물에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눅 3:10), 질문에 웃 두벌 있는 자는 웃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세리에게 정한 세의 녹지지 말고 군병들도 강포하지 말라고 무소하지 즉 속이지 말라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였다. 그러나 고민하는 자들에게 여찌 할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예수를 증거 했다(요 1:29).

처음에 율법을 말 하였으나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 했듯이 마태도 예수님이 산상에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을 부각 시켜 말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산상 설교 내용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그리스도로 웃 입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한다.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보다 백배나 더 의인이다. 왜 그런가? 예수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서울에서 열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데후서 3:16-17).

-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 8일(금)저녁까지
- 시간 : 오후 2시 - 4시까지, 저녁 6시- 8시까지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4층(제 2연수실)

- 주최 : 강사 송택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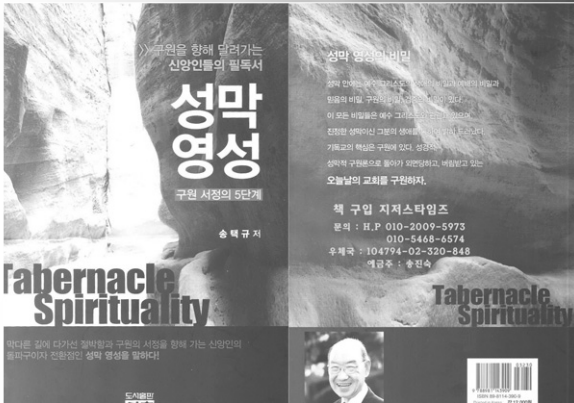


(미국 로드랜드대학교 부총장, 크리스천영성 대표, 시니어터미즈 USA 대표, 한국 지저스타임즈신문 & JTNTV방송 주필)
(저서 성막영성, 목회자가 나아갈 방향은?)

- 주관 : 한국 JTNTV, 지저스타임즈신문사 & 언론부흥사협의회



사 장 소진우 목사(대표회장)
발행인 정기남 목사(상임대표)





(사)한기보협,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제3회 신학위원회 미스바 회개기도회 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신학위원회(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제3회“미스바 회개기도회”를 지난 9월 19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대한수도원 아가페에서“옛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주

제로 각 교단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사)한기보협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에 앞서 1부 예배에서 오순절성회 탁원숙 목사가 기도를, 합동제일총회장 신한철 목사는 대하 7:12-16절을 중심해서“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에 있으리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에녹총회 박달수 목사의 봉헌기도, 총무 광영민 목사의 광고 후 자유감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주제별 기도회는 신학위원회 원장 한홍교 목사의 진행으로 1. 미스바 회개기도를 위하여 자유감

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 2.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통합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합동제일총회 김정우 목사, 3.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에녹총회 정사라 목사, 4. 위정자들을 위하여 에녹총회 최용준 목사, 5. 남북통일과 북 핵 저지를 위하여 진리총회 김은임 목사, 6. 세계선교를 위해 합동제일총회 이선영 목사, 7. 다문화 전도와 이슬람 배격을 위해서 호헌총회 도값을 목사, 8.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에녹총회장 광영민 목사, 9. 한국기독교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자유감리회 조미에 목사, 10. 성경필사 캠페인을 위하여 진리총회 김정미 목사 등이 말씀을 통한 주제를 발표한 후 합심하여 통성기도회를 인도하고,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로 뜨거웠다. 이어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축도로 한기보협 신학위원회가 주관한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제3회 미스바 회개기도회를 마쳤다. 또한 이날 찬양사역자 도값을 목사, 예정진리총회 임원들, 합동제일총회장 신한철 목사 부부, 자유감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와 목회자들 등이 찬양과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예장호헌, 제93회기 총회장에 한홍교 목사 연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호헌)는 지난 달 28일(목) 오전 11시 종로 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옛 신앙을 회복하자”란 주제로 제102회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개회예배는 총무 이정호 목사의 인도에 이순재 목사(사랑교회)의 기도, 김남욱 목사(별열교회)목사가 성경봉독(골3:12-17)을, 특별찬양에 도값을 목사(큰민음교회), 총회장 한홍교 목사(새샘교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한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마음을 주장케 하



라’면서 “신앙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건해야하며, 마음의 평강이 중요하고, 그래서 호헌총회는 연약하지만 결코 연약한 총회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호헌의 전통”이라고 했다. 또한 ‘호헌신학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호헌의 전통신학교를 지금까지 한 총회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02회기 성 총회를 갖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의 기도하고 성찬예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이 선출되었다. 총회장/한홍교 목사, 대외총무 /이정호 목사, 대내총무/김남욱 목사, 사무총장/오동환 목사, 서기/오다윗 목사, 회계/박성민 목사, 감사/차재준 목사, 도값을 목사 등이다. 이어 의장사화로 삼비부보고, 각 노회보고, 총회신학교보고, 정치부보고가 있는 후 안건토의로 들어가 제102회기 예산통과, 총무, 감사인준, 사찰위원보고, 내외장소결정, 파회결의, 회의록체택에 이어 총회장 한홍교 목사는 폐회예배를 드린 후 축도로 마쳤다. 성순화 기자 jtpress1@hanmail.net

약하지만 강한 호헌총회로

자부심을 갖고 교단발전에 주력하자!

예장고려 제67회기 신임총회장에 김길곤 목사 당선

부총회장 박영출 목사, 총무 표성철 목사 등이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는 지난 9월 18일(월)~20일(수)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아카데미캠프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라는 주제로 제67회기 성 총회가 개최되어, 김길곤(연수원교회)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당선됐다. 18일 저녁 7시30분 총회장 홍복두 목사의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이현상 목사가 기도를, 회록서기 표성철 목사가 눅 17:7-10절을 봉독하고, 김스웨이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홍복두 목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장의 사회로 사무처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투표위원을 선정하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신임총회장에 김길곤 목사



(서울남노회/연수교회), 부총회장에 박영출 목사(중부노회/임미누엘교회), 총무 표성철 목사(영남노회/대구광명교회), 서기 이현상 목사(서울 남노회), 부서기 고일곤 목사(서남노회/하림교회), 회록서기 안홍수 목사(서울남노회/영천교회), 부회록서기 현영훈 목사(중부노회/참빛교회), 회계 조영찬 장로(서울 남노회/경향교회), 부회계 이 정 장

로(봉림교회)등이 선출되었다. 이날 신임 총회장 김길곤 목사는 부족하지만 총회장에 추대해 준 총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교단 총회원간 친목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고려총회는 총회원들의 더욱 긴밀한 유대와 헌신을 통해 고려의 자랑스런 역사를 앞으로 되켜나갈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예장(웨신)인천, 102회기 총회장 정일량 목사 선임

부총회장 김춘택, 정원춘, 이종갑 목사 등 3인 선출

총회장 정일량 목사, 교단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인천웨신)는 지난 9월18일(월)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백범로 인천 로얄호텔 2층 대강당에서 총대 162명 중 67명 참석, 위임 25명을 포함 총 92명으로 과반이상 성원이 되어 제102회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부총회장 전복수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이종갑 목사의 기도, 회계 연합회정 목사가 성경봉독(행 2:1-4)하고, 총회장 정일량 목사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회의록서기 서기원 목사가 봉헌기도를 한 후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 총회와 노회, 지교회들을 위하여, 3. 신학교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연이어 남부노회장 정원춘 목사가 축사하고,



총무 김춘택 목사가 광고를, 증경총회장 임철환 목사가 축도했다. 2부에서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되었으며, 분병, 분잔위원에 강일만 목사, 김현중 목사, 정기범 목사이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회무처리에 이어 의장 정일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총대호명, 개회선언 등으로 모든 절차와 보고가 있는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기원 목사의 사회로 임원선거에서 정일량 목사를 102회기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를 하였으나 정일량 목사는 총회장 수락

에 대해 약 40여분 동안 몇 차례 고사를 했음에도 총대들은 어려운 시기에 총회가 원만히 서 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용단을 내려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의해 정일량 목사는 오랜 고심가운데 제102회기 총회장에 수락하고 만장일치 박수를 받으면서 선임되었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총회장장에 김춘택 목사(수도노회/은천교회), 정원춘 목사(남부노회/진주문교회), 이종갑 목사(서경노회/주일교회) 등을 선출했으며, 서기 서기원 목사(경향노회/예그린교회), 부서기 최재필 목사(중앙

노회/행복을주는교회), 회의록서기 김영희 목사(남서울노회/민수창성교회), 부회의록서기 김현중 목사(서경노회/홀리피플교회), 회개 연합회정 목사(경향노회/시온교회), 부회계 김민홍 목사(남부노회/부흥교회), 감사 박노경 목사(수도노회/주는교회), 강원기 목사(경향노회/이래교회) 등이다. 아울러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는 총무를 겸직할 말했다. 이날 총회장 정일량 목사는 취임사에서 “총회헌법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총회장 수락을 허락할 수 없다며 몇 번이고 고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에 한 번 더 역임해달라는 총대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하여 총회장을 수락하고, 부족하지만 또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웨신총회의 발전과 더 나은 총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도하면서 맡겨진 직책에 보답할 것이며 아울러 총대 여러분의 기도와 뜻을 모아 명품총회로 전진할 것을 주문하고 폐회예배로 성총회가 막을 내렸다”. 예정웨신총회 인천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기독교회관 604호이다.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목사)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학목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위원장)
15-18 광은기도원(한배위원장)
22-25 감람산기도원(이목원위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위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중현 목사)
29 군산열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령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위원장)
7-9 삼물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정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마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8-24 거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은사랑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배위원장)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위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목원위원장)
13-17 선교지방문
20-22 초대총관교회(이목원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경원위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0-13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17-18 정기노회
18-20 안배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8-12 네팔선교지방문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9-31 초대교회(윤호준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지(사역자)방문
18-30 본교회 2주년축성기념대성회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6 광선수양관(방만석 목사)
10-12 사랑의교회(고정익 목사)
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24-28 선교지(사역자)방문
3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7년 8월
3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위원장)
7-10 임미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4-17 광은기도원(김배위원장)
21-24 감람산기도원(이목원 원장)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7년 9월
4-8 은누리복음화협의회수령회(임기호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원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정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조연오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0-4 인도사역자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윤순 목사)
13-15 열방교회(최용구 목사)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27-30 노회선교지방문

2017년 12월
4-6 삼물교회(고정익)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1-3 양평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8-10 상대교회(황인우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임병환)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 목사)
29-1 광은기도원(김배위원장)

2018년 2월
5-8 감람산기도원(이목원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위수 목사)
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요한계시록 4장 강해(31)

사도요한이 바라본 천상 교회의 광경

계시록 1-3장까지 국내에서 해외에서 수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신데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http://jntv.kr)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연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기도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우리가 계시록 4장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 4장의 계시 말씀이 이 우주 안에는 없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깨닫기가 매우 어렵고,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까지 계시록을 다룬 많은 책들에서 계 4:3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같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들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고 열어주고 믿게 하시오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깨달아서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사도요한과 똑같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읽는 자(계 1:3)를 세워서 그를 통해 계시록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비로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리라."하더라.

'이 일 후에'는 계시록 1·2·3장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일곱 금촛대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3장에서 구체적으로 일곱 금촛대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금 촛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일곱 과정이므로 우리에게 모두 해당됨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록 2·3장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가진 우리에게 "보라, 하늘 문이 열려있는데"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문을 말합니다. 이는 사도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활짝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 3:7 필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은 어떠한 문이었나요? 그 문은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그 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 비밀들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특정한 다른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누구도 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본인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을 이 세상

의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십니까? 황금이나 물질 등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눈이 멀게 되는 것은 아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능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이 영의 눈으로 하늘 문이 열린 것은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도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먼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수월하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계시록 4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술술 깨달을 수 있나요? 길선주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계시록을 5만 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똑같이 하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 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님이 열어 주셔야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계시록 4장의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 데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또다시 요한과 같이 보여 준 자를 통해서 해석해주시면(읽어 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계 1:10).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팔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휴거를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에 의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본 것은 그의 육신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영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의 몸은 밧모섬에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사람의 몸이 우주 안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살전 4:17). 본문의 상황과 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고후 12:2-3에서 주의 영이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이끌어간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영이 성령에 의해 낙원으로 올려 져서 그의 영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요한과 바울의 경우가 입심은 아닙니다. 입심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말은 거짓 속임수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출퇴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이 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눅 16:19절 이하에서 부자가 사후에 간 곳이 음부(헬:하데스)인데, 대부분의 성경해석자들이 영여성경에 표기된 대로 헬을 '지옥'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를 지옥간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여성경에는 지옥과 음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헬로 표기하고 있으나, 헬라어 성경은 지옥(게헨나)과 음부(하데스)로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부자가 자신의 다섯 형제들을 걱정하여 자신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사후에 음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지옥에 간 자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옥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짐승 작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계 19:20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듯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천국과 지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함은 휴거나 입심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 중에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 영의 눈으로 셋째 하늘을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사도요한의 영이 하늘나라의 것을 그의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 - 이는 사도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요한이 2절 이하에서 본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 일곱 영들은 그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끝난 사건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될 일들을 본 것인가요? 이후에 될 일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24보좌에 이미 확정된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요한과 우리에게 구경삼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될 일, 즉 이후에 24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재림 시 확정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에 따른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가 앞으로 앉을 자리를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여 지면 그것을 확신하고 실상으로 누리는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기독교는 응답하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1517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덕꾸러기가 되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대형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부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할 교회 목사님들의 공사를 불문한 개인적 비리들이 만연하여 폭로되면서 기독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갖은 욕설과 비아냥거림 속에 성도들 입에서는 어찌하여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한탄의 신음소리로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사도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를 주장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에서 독립하여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케 하였 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 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과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미완의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속에는 '행위' 자체를 배제한 의미가 아니라 '행위'를 전제로 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적용해가는 과정 속에서 '행위'는 빠 버리고 믿음만 강조하다보니"믿 습니까?" "아멘!"하면 다 구원 얻은 것으로 잘못 인식되게 함으로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행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함은 없고 말만 많은 기독교인들을 세상은 이중인격자로 매도해 버리고 우리는 양심도 없고 영혼도 없는 자들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필 송택규 목사

성경에서 의(義)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義人)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으로 가는 행위'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라고 했듯이 사도바울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믿 습니다' 하는 자가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행' 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기 때문입니다(골7:3, 롬2:6)"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이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하시며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율법의 실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육신적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정신적 행위로는 성령을 받아 내적 변화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덮어놓고 '예수를 믿 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참 회개를 통하여 죄인이 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행위적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써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교리들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차례, 순서) 또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처음 길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지도나 또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나 정방향은 망판대해의 바다 한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신앙인이 잘못된 이정표를 가지고 간다면 그가 천국을 갈 수 있었습니까? 100% 지옥으로 떨어지겠지요?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망판대해의 바다 한 가운데서 나침판을 잃고 떠도는 배와 같은 것이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의 정확한 나침판은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왜 기독교 교단이나 교파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제각각 다릅니까? 어느 교단 것이 진짜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틀리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단호히 외칩니다! 첫째, " '믿 습니다' 말만하면 구원 얻었다"고 잘못 가르쳐 성도들이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가 르친 자들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는 응답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의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다 지옥 간 성도들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는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 기독교의 지고(至高)한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 지고의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됨으로서 생기는 기독교의 엄청난 패해는 어찌할 것 입니까? 그거짓구원으로 지옥 간 성도들의 책임 △바른길로 인도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성도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 △기독교의 미지 손실에 대한 책임 △하나님 영광을 훼손 시킨 죄에 따른 책임 △성도들의 시간 낭비 물질적 손실에 대한 책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기독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훈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일예 오후 8시 30분
금요일예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숙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훈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신약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정기집회 매월 밤 10시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임마누엘교회



담임 백은성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 010-2479-7793

▣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2)

〈지난호 이어서...〉

여러분이 판단이나 정죄,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비방 등의 죄를 범하고 ‘~하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는 죄, ‘? 지켜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로 주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란 주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열매인 죄들만 회개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계속 그 죄를 회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또 헛기 났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이 수년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의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약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7: 21?8: 4).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는데 아직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서 그리스도가 조금도 유익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의문이요 옛 언약이요 율법이고 헌 부대는 옛 언약의 정신, 곧 율법 정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나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교만의 고백입니다.

새 포도주(새 언약 곧 복음과 은혜)를 이러한 교만의 고백 안에 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바꾸어 자신이 다 지켜 행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갈 5: 4).

왜냐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 10)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부대는 신축성 있고 팽창력 있는 새 마음이요 새 영입니다. 우리는 주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한 새 부대는 새 언약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골 2: 26 ?27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심 같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을 사람이 지켜야 했기에 실패했지만, 새 언약 곧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실패할 수 없고 허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노력을 그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한 후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죄에서 벗어나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렘 31 : 31?34).

3. 기본 소식(1)

(가)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먼저 기본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죄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주님께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1서 5: 4~5).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쓴 뿌리란 원죄를 말하며, 기 속에 있는 죄도 부모의 기를 통해 내려 온 죄로 결국은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조차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죄의 쓴 뿌리와 기속에 있는 죄, 죄의 세력과 현존하는 죄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14)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난호 이어서...〉

국체명징(國體明徵)- 이는 나라의 근본을 생각하자는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 의미는 신을 경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경신숭조와 제정일치였다. 일본은 전쟁중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천황을 신성화 하는 정책을 썼다. 천황을 상징화 하여 자기의피와 재산 그리고 생명까지 천황의 것이므로 천황을 위해 전쟁에서 싸우고 천황을 위해 죽는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들은 바로 우리민족에게 이런 사상을 가르쳐 이용하려하였다. 바로 이것을 실행하기위해 시도한 것이 “신사참배(神社參拜)”와 “궁성요배宮城遙拜”이다.

“신사”라 함은 일본의 황실의 조상이나 국가의 공로자를 신으로 모신 사당이 있는 곳이다. 서울의 남산에 가장 큰 신사가 있었으며 전국 각처에 신사를 만들어 참배를 강요했다. “궁성요배”는 일본 천황이 있는 곳에 절을 하는 예식이다. 일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 키위해 학교마다 봉안대를 설치 아침 등교 시 학생들에게 절을 하게하였다. 아침 조회 때마다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였다.

황국신민서사는 천황의 신하임을 의무게 하는 것이다. 정오가 되면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목도를 하게했는데 천황에게 감사하고 전쟁에서 죽은자들의 명복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다.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국인 이므로 전쟁의 당위성을 심기 위함이다. 내선일체(內鮮一體)-일본과 조선이 한나라라는 뜻이다. 두나라를 한나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한 첫째는 조선어를 쓰지 말고 일본어를 쓰라는 것이다, 말은 그 나라의 일이요 정신이다, 열빠진 민족을 만들려는 속셈이다.

만일 학교 안에서 조선어를 쓰다 적발하면 벌금 견책, 처벌 등이 이루어졌다. 1038년4월부터는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물레 조선어를 쓰는 자는 매일사상이 농후한 자로 불이익이 많았다. 두 번째 시책은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 다”는 격언이 있다.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김 昌 龍 牧師
(하나님미디어인하교회)

정신이며 가계의 뿌리이며 한 인격의 권리이다. 형식은 자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강제였다. 어느 학교에선 교사로 채용하는데 창씨개명을 안 한자는 채용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학생으로도 받지 않았다.

인고단련(忍苦鍛鍊)- 전시에 물자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학교전체를 노동자 양성소로 만들려했다. 한창 문화적 욕구에 무엇이든 다 배울 시기에 학생들을 전쟁수행을 위해 정신교육과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자로 삼으려했다. 우리 민족에게 행한 범죄중 가장 악랄한 것 중의 하나다, 학교에서는 애국일행사, 신사참배, 총력연맹행사, 국방헌금행사, 폐품수집 등에 내몰려 공부도 못하게 하고 여기에 시국영화 관람까지 전쟁을 위한 정신교육장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군로대를 만들어 학교대신 비행장, 공장으로 나가서 노동자처럼 일했다.

일본 군인들이 감독을 하여 마치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자고 먹는 것도 비참할 정도다. 추운 곳에서 자고 먹지도 못하니 병에 걸리는 학생도 많았다. 진료도 못 받고 죽는 학생도 있었다. 인술교사와 군인들의 총독도 있었다. 여학생들은 군복을 입는 일에 시간을 빼앗겼다. 항공 훈련이나 행군 원조를 비롯한 군대식 체조훈련을 받았다. 위문대를 쓰고 위문대를 만들었다. 더욱 가증한 것은 이런 전쟁준비를 수행하기위한행사에 참여 한것을 성적에 반영 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황폐한 문화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6)신사참배(神社參拜)와 기독교 학교들의 자진폐쇄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따라 교회 신사참배문제로 마찰이 많았다. 특히 보수적 장로교회의 반발이 심해서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순교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 이 있다.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를 하느니 차라리 교육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1935년 북장로교회에 속한 숭실학교가 신사참배를 할수 없다고 거절했다. 일제는 회유하고 협박하며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결국 북장로교 계통의 남녀중학교 10개교 전문학교1개소 남장로교회 중학교2개교, 초등학교8개교가 자진하여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재령의 명신학교(남,여) 평양숭실학교(남,여) 숭실 전문과, 신성학교(남), 보성학교(여) 송의학교(여) 대구의 계성학교(남) 신명학교(여)) 전주의 신흥학교(남) 기전학교(여)와 기타 초등학교 8개교다. 그동안 수많은 선교비들 들여 학교를 세우고 유지한 선교부로서는 어쩔수없는 조치였다.

특히 재학생들에게는 자진폐쇄라는 극악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많은 고민중에 선택한 일이다.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없기에 결국 포기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선교사들의 고뇌에 찬 한문서 를 공개한다. 당시 기독교학교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문서이다. 남장로교회 선교부 실행위원 이었던 씨디비 풀턴의 명의로 된 성명서이다. “한국에 있는 우리학교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한 후에 미국남장로 교회 해외선교부 실행위원회는 한국선교부의 우리 교육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따를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제출한다.”

1. 우리는 한국인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수년 동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2. 우리는 선교부를 통하여 당국의 과거 우리 교육 사업에 상응하는 자유와 보호에 대하여 감사한다. 3. 지금도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리의 교육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활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학교설립당시 유용했던 동기와 동일한 목적으로 행동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를 수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교육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것 같아 최근의 사태 발전을 고려하여 이에 우리는 마지못해 우리 한국선교부의 적절한 절차로 우리학교를 폐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배 저녁 7시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벨엘중앙교회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641-0687 H.P 010-7405-9191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철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



담임 박연자 목사

주소 : 인천 남구 주안 4동 1483-4 (3층) H.P 010-6237-9755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욱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국제에녹부흥사회 제8회기 총재 이흥희 목사 추대

국제에녹부흥사회 수석부총재 및 부설 디딤돌선교회 신설결의

국제에녹부흥사회(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지난 9월 25일 오전 11시 인천시 남구 송의동 복원교회(부총재 윤동훈 목사)에서 제8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현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가 유임되고, 부총재 이흥희 목사를 신임총재로 추대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이선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총재 광에스터 목사가 기도, 김선우 목사의 아름다운 특송과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마 24:1-14절을 중심해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선한 목사가 광고를 한 후 특별기도 순서에서 1. 국제에녹부흥사회를 위하여, 2.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3. 해외 선교지 일본, 파라과이, 칠레 복음화를 위하여, 4. 국가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복원교회와 회원교회를 위하여 5. 연합성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가졌으며, 총재 정기남 목사(JTNTV 지저스타임즈 발행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의장 광영민 목사의 사회로 부총재 임순화 목사가 기도하고, 회무처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원선거는 공천위원장의 공천보고가 있는 후 의장 광영민 목사가 본 회의 선거 방침을 부연설명하고 동의



를 얻어 다음과 같이 신임원을 호명하여 박수로 추대했다.

이날 총재 이영희 목사, 부총재 임순화 목사, 합선교 목사, 윤동훈 목사, 광에스터 목사, 김성수 목사, 총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수석상임회장 최동준 목사, 파라과이대표 광성건 선교사, 일본대표 이성자 선교사, 사무총장 공석, 상임회장 김해중 목사, 이선한 목사, 수석실무회장 공석, 감사단장 김선우 목사, 실무회장 전미리 목사, 김창숙 목사, 한효상 목사, 사무처장 윤주

만 목사, 수석공동회장 모성춘 목사, 공동회장(회계) 김영애 준목, 사무처장 정사라 목사, 공동회장 이경우 목사, 김오순 목사, 재정부장/공동회장 김지언 목사, 수석총무 공석, 총무 김영숙 집사 등이 공천되어 승인받고 각각 추대되었다.

이날 안전토의에서 수석부총재직을 신설기로 가결하고, 에녹부흥사회 부설로 디딤돌선교회를 신설하고 등록한 회원에 한해서 매 월 1만원의 회비를 정했으며, 정식 등록

을 필한 회원에게는 의료비 혜택을 지원하며 자세한 것은 본회 대표회장 및 임원에 의뢰하면 알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초교파로 정한다.

한편 국제에녹부흥사회는 고문에 이환호, 정기남 목사, 자문 이병학 목사를 선임하고, 고문 정기남 목사(직전총재)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제8회기 회무를 성은 중 마쳤다. 총재 이흥희 목사의 총재 취임감사예배는 12월 초 중 축복받은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부장 성순희 기자 jtpress1@hanmail.net

예장총회(에녹) 제4회 정기총회 마쳐



총회 결의문 채택

대한예수교장로회(에녹) 총회는 9월16일(토)에 인천 남구 소재 총회장 광영민 목사가 시무하는 등불교회에서 “깨어 있으라!”(마24:1-14)는 주제 아래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은혜롭게 마쳤다.

이날 새로운 임원 선출과 교단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환영사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총회가 날로 발전하고 내실을 다져가는데 교단장으로서는 기쁘기가 그지없다고 전하며, 총회를 좀 더 잘 이끌어야 하는데 늘 부족한 맘뿐이라며, 믿고 따라준 총대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으며, 지난 회기동안 “예수 안에서 자라고 역사하고 세워지는 해!”(엡4:16)란 주제를 가지고 잘 지내왔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렇듯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 총대원들과 총회원들을 치하하고 이번 제4회 정기총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교단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며, 축하했다.

광 총회장은 “깨어 있으라!”(마24:1-14)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때에 목회자들의 사명이 막중함을 알고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와 거짓 선

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하는데 교단과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미혹당해 가정이 파괴되고, 파탄이 나기에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즘 성도가 아닌 목회자가 이단에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는 이때에 교회와 특히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광영민 총회장 연임과 함께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주요 안전처리로는 지난 제6회 인천대회에서 상정된 ‘총회 결의문’을 수정 보완하여 채택하였다. 이로써 총회의 정체성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WCC, WEA, 동성애를 비롯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함을 다시금 천명 하였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본 교단이 속한 (사)한국 기독교보수교단 협의회의 행사 및 신학위원회 세미나와 미스바 기도회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마서 성경필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kdp0920@nate.com 인천지사

예장(합동보수) 한중노회 175회 노회장 김국태 목사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한중노회(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심곡동) 세향교회(김관호 목사 시무)에서 제175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김국태 목사(강서교회)를 만장일치 노회장에 유임시켰다.

이날 오전 11시 제175회 정기노회를 위해 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한기장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 김관호 목사(세향교회)가 성경봉독(엡4:1-6)을, 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현대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는 말씀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노회를 통해서 세가지 큰 사역을 이루



어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첫째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노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제자 되게 하는 것, 셋째로 교회는 세상을 통해서 세가지 큰 사역을 이루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취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식에는 임원택 목사(노원예배교회)의 집례로 한복의 목사(양문교회)가 기도를, 박기철 목사

(흥제중앙교회), 김승환 목사(시온교회) 등이 분별, 분간 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으며, 3부 제175회 정기노회가 개회되어 회무처리가 진행되었다.

한중노회 175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 부노회장 한기장 목사(주사랑교회), 서기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부서기 박기철 목사(흥제중앙교회), 회록서기 송창훈 목사(새샘교회), 부회록서기 배영자 목사(금천시온교회), 회계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부회계 한복희 목사(양문교회) 등이다.

한편 이날 권혁화 목사, 한동복 목사가 한중노회원으로 가입되었다.

성순희 기자(cpj01@naver.com)

개혁총회, 총회장 조경삼 목사 선출

부총회장 김운복 목사, 서기 최영수 목사 선출

개혁총회 임원 선거가 투표 끝에 마무리되었다. 신임 총회장 조경삼 목사, 부총회장 김운복 목사, 서기 최영수 목사 등을 선출했다.

신임 총회장 조경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총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총회장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2011년 95총회에서 전도총회 열일 후 개혁총회 교회들이 일부 총회를 떠났지만 다시 한 번 그날의 영광스런 날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총회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대외적으로는 부당하게 다락방 전도운동과 교단을 비판하는 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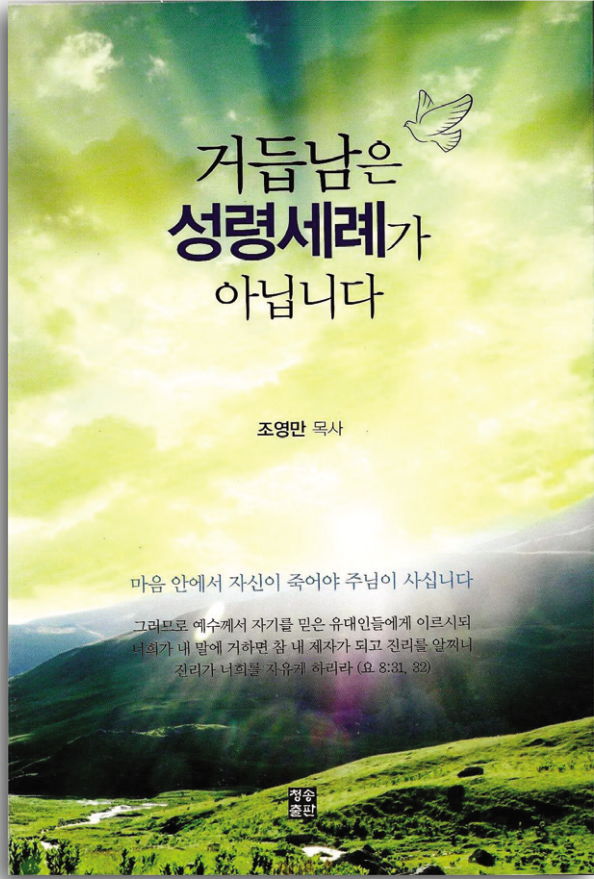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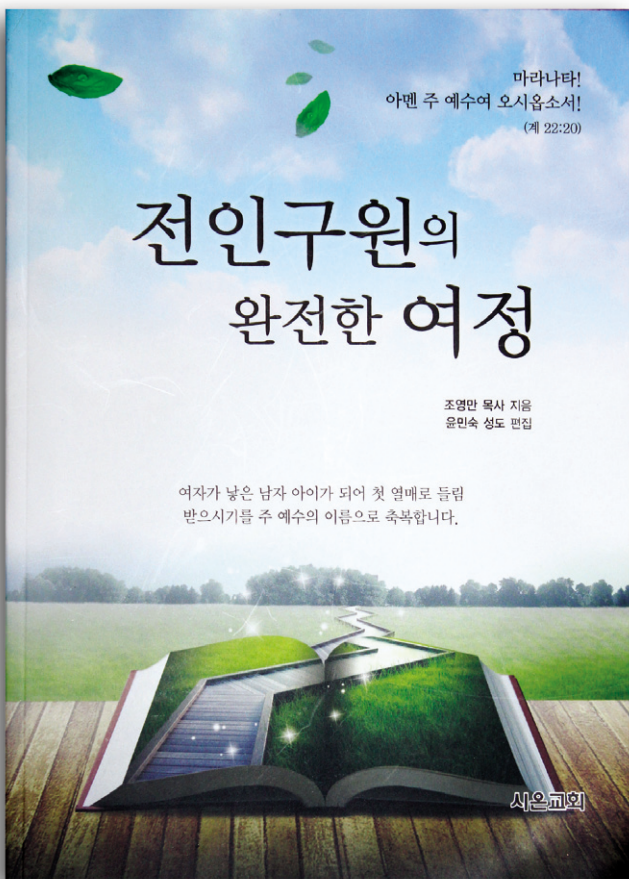


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 활동에 최대한 협력하고 연합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전도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2회 총

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 신구 임원교체식을 하고 신임총회장이 직전 총회장 최정음 목사와 장로부총회장 이희덕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신간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바(거듭남)을 늦은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총회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을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거듭남)을 신령한 자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 성령의 새물결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믿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를 은혜위에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거듭남)을 의의 겹옷(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브라함이 85세에 벨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조영만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 사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시문장포럼 담당목사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다음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배를 <http://cafe.daum.net/choym.com>

CTS기독교TV · CTS 인터내셔널,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 과 MOU 체결

‘CTS-요즈마 캠퍼스’ 설립하고 기독교 기업가 양성한다

CTS기독교TV와, CTS 인터넷서
널이 글로벌 벤처 지원 기업인 이
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함께
'CTS-요즈마 캠퍼스'를 설립, 운용
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10월 16
일 체결했다.

CTS와 CTS 인터내셔널은 오는 11월 21일부터 하브루타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헤츠키 아리엘리 총장이 직접 강의하는 'CTS·하브루타 교육 프로그램'을 격월로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기독교 기반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향후 실시할 주요 프로그램은 '하브루타 교육(교회학교 교육 과정, 전문 강사 과정, 교육자 최고위, 경영자 최고위 등)', '기업가 정신', '요즈마 스피치&멘토링', '투자 설명회', '유아와 초중고 요즈마 챌린지 및 선교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국립인과 함께 'Start-up 기업 선발 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최초 '기독교 기반 벤처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CTS에서 자체 운영 중인 기독교대안학교 '크리스천글로벌스쿨(C.G.S)'에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적용한 새개념 대안학교 모델을 정착시켜 한국교회에 양질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로써 CTS와 CTS 인터내셔널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새로운 선교 방식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첫 시도로,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소셜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Start-up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신실한 신앙과 도전정신을 가진 기독교 기업가를 양성하는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즈마 그룹’은?

1990년 ‘요즈마 펀드(약 3,000億 원)’를 기반으로 설립된 Technology Incubator 기업으로 글로벌 벤처 발굴 및 투자(現 6.7兆원 규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기술 기반 초기 벤처들에 투자해 10개의 펀드 중 6개 펀드에서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 최고 123%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M&A를 통한 글로벌 R&D 센터 유치 성공의 실적을 보였다. 이로 인한 M&A 시장을 조성 중이고, 현재 전 세계 최다시간 투자회수 EXIT M&A 생태계 조성(평균 투자회수 기간 3.98년, 전 세계 1위), 한국 진출 후 평가, 고려대(2017.10 개소 예정) 등에 요즈마 캠퍼스 유치, 벤처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	--

글로벌 벤처캐피탈 유치 성공, M&A를 통한 글로벌 R&D 센터 유치 성공의 실적을 보였다. 이로 인해 M&A 시장을 조성 중이고, 현재 전 세계 최단시간 투자회수 EXIT M&A 생태계 조성(평균 투자회수 기간 3.98년, 전 세계 1위), 한국 진출 후 평균, 고려대(2017.10 개소 예정) 등에 요즈마 캠퍼스 유치, 벤처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LA지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16일-17일 평화교회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
로 된 것으로 교
훈과 책망과 바
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하니 이는 하나
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
든 선한 일을 행
하기에 온전케 하
게 함이니”
모데후서 3:16~17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구 목사) 주최, 비전복음방송(FM 100.3 HD2) & 크리스천비전신문사 주관,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회장 인덕일 목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헬렌 김 목사), OC한인목사회(회장 김익현 목사), OC한인여성목사회(회장 정혜숙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윤목 목사), 시니어타임즈USA(대표 송택규 목사), 한국기저스타임즈(대표 정기남 목사)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16일(월)~17일(화) 양일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16일(월) 첫째 날 제1강의는 김
영호 목사(감동시키는설교연구원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영구 목사는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이하여 남가주에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 특히 비전복음방송과 크리스천비전신문사와 한국 지저스타임즈가 함께 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미주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주교계에서 신뢰받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주 강사들은 이번 주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확산되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 특히 당일 점심은 남가주 목사회에서, 다과는 OC여성목사회에서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이인교사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사, 사모 및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

원장, 유인신학대학, 목회신학대학원 교수)가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라' 정발, 예수님처럼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가? 제2강의는 김정환 목사(실버레이크한인교회 담임, UBU, JENESIS 대학교 교수)가 '종교개혁의 필요성' 기독교사상사에 비취본 우리의 신앙 '이란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17일(화) 둘째 날 제1강의는 송택구 목사(크리스천영성 대표, 로저랜드대학교 부총장이며 한국지저스타임즈 필필)가 '기독교는 응답하라' 성감영성을 중심으로 목회자가 나아가야 방향은? 제2강의는 박광재 목사(한국영광교회 담임, 교회와 국가의 선거제도개혁 운동본부장,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원장)가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하여'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예장한영, 제102회기 총회장에 김시홍 목사 당선

목사부총회장 신상철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진수 장로 선출

대한에수교장교회(한영)총회는 지난 9월 18일(월)~19일(화) 서울 시 구로구 경인로 서울한영신학대 학교 부동부 대강당에서 '성서로 돌아가자'(딤후 3:16)란 주제로 제 102회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총회장에 김시흥 목사, 목사부총회장에 신상철 목사, 장로부총회장에 김진 시 장로를 선출하고, 총무 김병찬 목사를 유임했다.

이날 총대 230여명이 참석하여 서기 이계신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서울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최규석 목사는 딤후 3:16절을 중심으로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2부 성찬예식에 이어 3부 회무처리가 진행되었다.

한영총회는 '성서로 돌아가자'(딤후 3:16)란 주제로 총회에서 제 102회가 임원선출에서 총회장 김시흥 목사(수선교회), 목사부총회장 신상철 목사(복있는교회), 장로부총회장 김지수 장로(송학교회), 서



기 이계신 목사(엘림교회), 부서기 한미량 목사(한샘교회), 회록서기 박필훈 목사(시온소교회), 부회록서기 유재봉 목사(예수님교회), 회계 박영애 목사(생명수교회), 부회계 김정훈 목사, 총무 김명찬 목사, 감사 우상용 이영희 목사 등이 결정되었다.

신임총회장 김시홍 목사는 취임사에서 “최선의 역량으로 총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총회중점 사업은 1. 미비 된 규정과 총회 실정에 맞는 규정 보완을, 2. 노회와 긴밀한 관계 통해 총회와 노회의 발전을, 3.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4. 각국 각위원회 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평신도사역 협조를, 5. 현영신대를 중심으로 후학을 위한 신학교육을, 6. 교역자부부 연합수양회를 통해 총회

동역자의 동질성 향상으로 연합 일치에 힘쓸 것"이라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울러 한영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한다. 말씀과 기도생활은 물론 인내와 절제와 근신으로 주의 거룩한 사랑을 닦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정직하여 책임 있게 언행심사에 신실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매사 공명정대하고 편견과 편애를 피하여 과장, 왜곡, 파당을 짓는 부정부패 배격, 상호 인격 존중과 고성을 삼가며, 교관님용과 월권행위, 직무유기, 부당한 송사와 심판을 지양하며 화평도모와 신앙인격에 따라 품위 유지, 신앙양심에 따라 부부관계 대의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성경말씀과 교리에 입반되지 않는 미풍양속 실천을, 대중매체를 통한 중상모략을 금하고 교회의 부흥발전과 향상에 위상정립을 위하여 충성되게 봉사한다.」 등의 실천적인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LA 타임스 앞에서 집회 연 보수애국단체들

100여명의 미주애국동지연맹 ‘문재인을 탄핵하라’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LA지역 애국보수단체들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중심지에 한 폭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LA타임즈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문재인을 탄핵하라'는 등의 피켓을 내걸고 미 주류 언론과 시민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호소했다.

이날 참가한 단체는 위드코리아, 나라사랑애국본부, 원프리코리아, NKIA, NK미션, 미주애국동지연맹으로 집회 참가자와 지지자들을 포함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나는 미국 시민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적극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 거짓탄핵, 구속연장에 관한 것과 한미동맹이 위기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 영어와 한국어



를 섞어 전달하기도. 인근에서 주
의 깊게 지켜보던 한 미국 시민은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다.

로하기도. LA 지역 애국보수단체는 이 집회에 이어 LA한인타운 중심 월셔/웨스턴 역 광장으로 집결, 북핵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사진 제보=위드코리아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 입 생 모 집 요 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점수료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 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 소 : 꾸미오리선교센타(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 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예능부흥신학 신학생 모집

실업자 / 대표	이사장	학 장 / 이사	이 사	이 사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	이호성 목사	임순hak 박사	정기나 목사	김영숙 집사	김영애 전도사

교 수 진

박영민 교수, 임순hak 교수, 김진우 교수, 박형모 교수, 심기석 교수
 권경자 교수, 김성진 교수, 최동준 교수, 김명호 교수, 모성춘 교수
 윤동훈 교수, 이경우 교수, 김정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김영진 교수, 제갈요한 교수, 한영실 교수, 이완호 교수, 주찬양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애는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치유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환영

저희예능부흥신학은

- 교육은 방학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파중심의 교육하고 있습니다.
- 대안대학+교과정의 총회(예능)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능총회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칙 회원 기관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증 받았습니다.
- 총회장 박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의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 부흥사 및 예능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예능부흥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등불교회.**
- **주소: 인천 광역시 남구 논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7 표어

- 선교하는 교회
- 사랑하는 교회
-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일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http://www.mokpojuan.com>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상련

섬기는 분

담 임 :	모상련 목사
부 목 사 :	모정선 김기현 박민수 모성운 (은퇴) 장정화
협동 목사 :	추정희 진인순 윤영옥
심방전도사 :	파송선교사: 안재선(선교자베트남) 김은미(선교자베트남) 안윤기(선교자캄보디아)
파송선교사 :	김진희(선교자캄보디아) 김미경(선교자적도나)
교육전도사 :	편에트남신학교(유학)

대한예수교
목포주안교회

주소 : 58714 전라남도 목포시청호로 159(산정동)
☎(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스리랑카교회들이 예언의 빛을 받아 새로워지다!

250여명의 목사 목회자들에게 때에 따른 양식을 주심

주사랑 교회 장한국 목사(진리총회 총회장)와 5명의 선교팀(박인숙 사모, 박현주, 배현영, 신승림, 박정숙)은 2017년 9월 19일~26일까지 8일간 여정의 스리랑카 선교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는 하나님께서 이 때에 따른 양식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 이는 스리랑카의 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다.

스리랑카는 두 민족(싱할족, 타밀족)이 서로 대립된 상태에서 같이 생활하는 특수한 나라로 세미나에 참가하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와 싱할어, 영어와 타밀어로 하여 요한계시록 책자가 만들어졌고 이들에게 배부되었다.

첫째 날 세미나는 약 200여명에 이르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스리랑카 특유의 힘 있는 경쾌한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오프닝 메시지에서 장한국 목사는 나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된 자이며 25년간 요한계시록을 증거 해 왔음을 밝혔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후 예언의 등불로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역설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온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환한 얼굴로 빛났고 예리한 겹과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소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세미나는 작년과 달리 싱할어, 타밀어가 동시통역되도록 사실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증거 할 수 있었다.

첫째 날 세미나 중 계 1:7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에서 이 '구름'들은 인격적 의미를 가지고 살전 4:16~17 말씀처럼 재림 주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며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한 재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날에 죽기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으



로 세우실 것이며 여러분들도 모두 그 자리에 드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에서는 큰 환호가 있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수산'이라는 목사가 와서 본 강의 메시지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좋다며 고백을 하는가 하면, 또 '비숍' 교단 장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하며 한마디에 초집중하여 듣고 가장 큰 목소리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또한 그는 장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한 달 이상 개인적 화음을 받고 싶다고 있어서 환란 전 휴가를 받고 있기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환란 전 휴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며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복된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날 세미나는 주 재림 전 재림이 있고, 휴거(계 16:15)도 있을 것, 그리고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을 증거했을 때 이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환란 전 휴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며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복된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타밀족이 약 120여명, 싱할족이 80여명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비 진리와 이단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 때에 장 목사님을 통하여 정답을 찾게 되어서 자신들은 너무 축복 받은 자들이라고 기뻐하며 고백하였다. 할렐루야!

아울러 그들은 이후에도 계속 이 교회의 '스시마' 사모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 61페이지에 달하는 메모를 할 정도로 사모함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 안에서 큰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었다. 이들 모두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과 또한 이비우 선교사는 장 목사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은 우리 선교단원들에게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스리랑카 교회에 예언의 빛을 비추어 이들이 새로워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으로 서로의 피로감도 싹 날리며 버렸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할 뿐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교지 취재: 집사 박현주

이화배제 사랑의 음악회 성황리 마쳐

기독교정신으로 지역사회 도와/ 밀알장애우 장학금 후원자리마련

이화여고동창합창단(단장 송묘령)이 주관하고 남가주이화여고 동창회 와 남가주배제동창회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17일 월서연 합감리교회에서 '제6회 이화배제 사랑의 음악회'가 열렸다.

송묘령 단장은 이번 사랑의 음악회는 "이화, 배제의 기독교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밀알장애우 장학금을 후원

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음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제코랄 김동천 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창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꾸준히 노래 부르며, 양교 합창단의 음악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에 감사하며 건강과 아름다고 멋진 삶을 기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자"고 말했다.

밀알선교단 교본 이은철 목사가 개회기도를 한 후, 이화여고 동창합창단(지휘 민재희, 반주 헬렌박)이 〈기도〉, 〈주 보다는 날 사랑하는 이 없네〉, 〈축복 하노라〉를 부르고, 배제코랄(지휘 유의철, 반주 최승교)이 〈오직한분〉, 〈비추소서〉, 〈일어나 걸어라〉, 이화배제 합동연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운 금강산〉 등을 연주 한 뒤, 배제 동문인 박영천 목사의 폐회 기도로 사랑의 음악회를 마쳤다.

예장진리총회 제102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 연임

“진리총회를 장자 총회로 하나 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 주사랑교회에서 각 노회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제10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를 만장일치 당선되었으며 부총회장을 공식으로 두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약간의 유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대로 유임되었다.

총회 회의록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히 12:22-24절을 중심으로 “이 총회를 장자 총회되게 하소서”하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정요한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는 후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식에는 박명자 목사가 집례를, 전상렬 목사 최순란 목사

가 분명, 분잔 위원을 진행한 후 집례자의 축도 순으로 마쳤다.

3부 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부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를, 이어 총대호명과 개회가 선언되고, 각 부보고 총무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원선출에서는 총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천성교회), 부서기 전상렬 목사(새에루살렘교회), 회의록서기 김은임 목사(감사교회), 부회계 유순옥 목사(조예교정교회), 회계 김정미 목사(새에루살렘교회), 부회계 김진환 목사(주사

랑교회), 총무 정요한 목사(진리선교교회) 등이 선출되었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진리총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장자총회로서 자부심을 갖자고 했다. 그러면서 빌 2:13“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쁨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장자총회인 진리총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총회보다도 제일가치가 있고 모든 총회 중에 머리가 되는 장자총회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자총회로서 온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총회로 성장해 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비전을 갖고 전진할 것을 피력했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 제19회 정기노회 장한국 목사 노회장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대한노회는 지난 10월 10일 11시 경기도 안양시 삼덕로 소재 주능력교회(담임 최순란 목사)에서 제19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만장일치 유임시켰으며 부노회장 자리는 공식으로 남겨두었다.

이날 대한노회 서기 박민규 목사(새생명교회)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회계 김정미 목사(새에루살렘교회)가 기도, 인도자가 성경 신명기21:17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장자 노회로”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성노회가 주능력교회(최순란 목사)에서 개최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다며 축하했다. 그러면서 노회장은 설교에서 우리 대한노회가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 이 보시기에 대한노회는 어떤 노회인가를 돌아보면서 아울러 우리 대한노회를 성노회로 축복받을 노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원했다. 무엇보다도 대한노회는 장자총회에 속한 장자노회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헌신을 다해나가자며 축복을 기원한 후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는 정요한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되었으며, 최순란 목사(주능력교회)가 분명위원을, 전상렬 목사(새에루살렘교회)가 분잔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설교가 있는 후 축도로 마쳤다.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모든 보고와 안건을 다룬 후 임원선거에서 총대원 전원의 박수를 받는 가운데 노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유임되었다.

단 부노회장은 공식으로 두기로 했다. 폐회예배에서 김은임(감사교회)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폐회설교가 있는 후 축도로 제19회 정기노회가 성료되었다.

성순희 기자 jtpress1@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제102회 신·임원 환영

주제 : 이 총회를 하늘의 장자 총회로 되게 하소서(히 12:23절)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전상렬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교회)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진리선교교회)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총회의 영입을 환영합니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구.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예장(진리)총회 · 대한노회 제19회 신·임원 환영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구.내손동) Tel 031)424-7612

노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기독교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구원의 능력
성경: 시편 80:8-14, 찬양: 9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을 향한 자신의 기대를 접으시고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낮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목: 눈물의 기도
성경: 시편 80:15-19 찬양: 364장

우리는 때때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로 고난을 받고 원수들의 비웃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사람은 심히 죄악 되며 의와 선을 행하기에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제목: 아름다운 찬양
성경: 시편 81:1-4 찬양: 621장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아픔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를 읊으며 소고(小鼓)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연주하라"는 것은 아름다운 글과 목소리와, 작은 북과 수금과 비파 등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송하고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제목: 은혜의 망각
성경: 시편 81:5-7 찬양: 337장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브리바 물가에서의 시험을 통과 못하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입을 넓게 열라
성경: 시편 81:8-12 찬양: 65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신, 곧 이방신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입과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니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나님의 도(道)
성경: 시편 81:13-16 찬양: 430장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道)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택하신 백성 곧 아브라함과 의약 속에서 할례의 표를 가진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한 순종의 삶이었듯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도(道), 곧 그의 모든 교훈들을 행해야 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대리자
성경: 시편 82:1-2 찬양: 340장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신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판사들을 신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 서시며 판사들 중에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는 판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의의 시행자이어야 했으나 악인들의 낯을 보이주며 불공평한 판단을 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위치와 자리에서도 공의와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목: 공평과 정의
성경: 시편 82:3-5 찬양: 463장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부자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도 불의한 판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날의 판사들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사로온 물질적 탐욕을 가지고 불의한 판결들을 내린다면, 그런 사회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데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경고
성경: 시편 82:6-7 찬양: 438장

하나님께서 판사들에 대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판사들의 권위와 직무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그 직무와 권위를 저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의 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의의 참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심판
성경: 시편 82:8 찬양: 426장

세상의 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줄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공의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특히 약한 자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공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의 대상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철저할 것임을 명심하고 각 사람은 의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목: 핍박당할 때
성경: 시편 83:1-2 찬양: 342장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깨우려는 까닭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핍박자들과 대적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 원수들의 배후
성경: 시편 83:3-4 찬양: 348장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였고 그가 숨겨두신 보배로운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였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시키려 계획하였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원하고 오늘날에는 기독교회들의 멸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 참된 교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그런 교회들의 건립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원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원대로 되지 않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목: 지켜주심
성경: 시편 83:5-8 찬양: 429장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하려는 계획에 여러 나라들이 일치단합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의논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연맹을 맺었습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인, 그발, 압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심지어 앓수르까지 연합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말살하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반대되는 악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제목: 도움의 손길
성경: 시편 83:9-12 찬양: 425장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패망시키신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시어 원수들을 물리치셨듯이, 즉 시스라와 아비에게,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오렘과 스넵에게와 또 세바와 살몬에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하자고 말하는 저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늘 그분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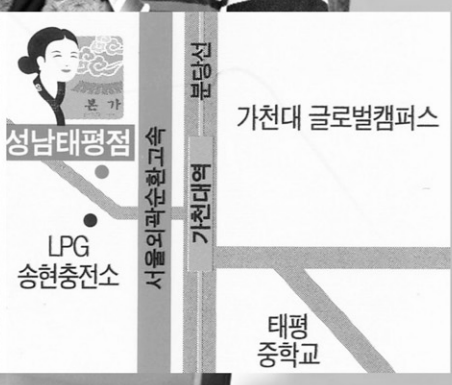
GOOD TV 와 함께하는 다문화 선교콘서트

Praise! The Lord



강신숙 목사
(대표회장)
010-9049-4846

찾아오실길



일시: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GOOD TV, 다문화 영국방송
장소: 7080 힐링콘서트 3층 (돈통마늘보쌈 성남태평점) ☎031-757-3995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9 (태평동 7148-4) ☎010-3516-3995
주최: 기독교연애인부흥사협의회 (서로돌아보아방송) http://cafe.daum.net/kybh
협력: 기독교여성신문, 21C블래스협, 샤론조경 (장봉섭장로) ☎010-6206-4846

수도권지역 주택 · 대지 특별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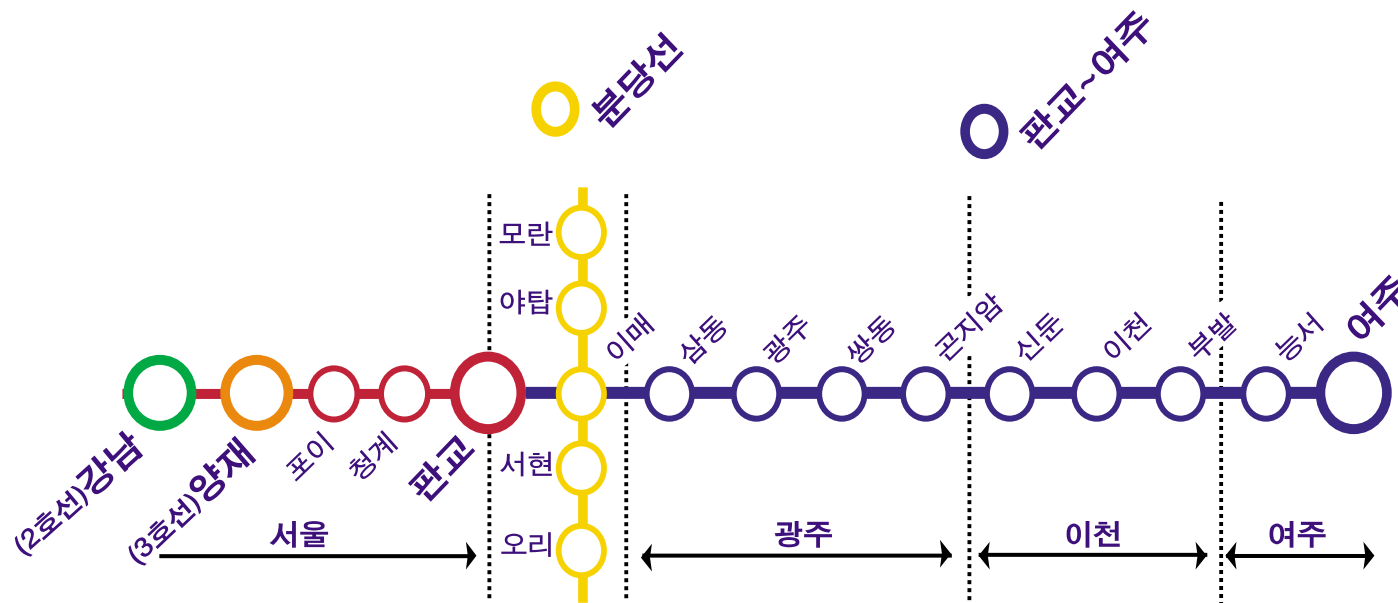
전원주택지 1차 택지완료
전원주택 2동 건축, 1동 건축허가, 6동 건축준비완료
(임야 33㎡ 당 40만원, 약 6600㎡ 매매함)

은행대출 분양가에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 지중화

목회자·성도·일반인 누구든지 노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여주전원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대지 특별분양 (6,820만원)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하실 분을 위하여 대지를 분양합니다.
(대지 330㎡+도로(37㎡)=367㎡)
평당 3.3㎡/62만원×367㎡=합계 6,820만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 8500만원/ 방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72.6㎡, 1억 5500만원/ 방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 (1층 72.6㎡, 2층 26.4㎡)
대지 330㎡, 도로 37㎡, 합계 367㎡



교통 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 개통됨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 (2~3분 소요)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 개통됨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 (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I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 (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010-5468-6574 / 010-3478-6574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

분양 문의 **02) 854-1355**